

#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박미정<sup>1</sup> · 유하나<sup>2</sup>

호서대학교 간호학과<sup>1</sup>, 대전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 Major Satisfaction as a Mediator of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Comparing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th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Mijeong Park<sup>1</sup> · Hana Yoo<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or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the majors.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universities randomly chosen from 47 universities in Seoul, Korea. Participants were 241 undergraduate students who were eligibl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7 to November 10, 2014.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techniques with the PASW/WIN 20.0 program.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negative, an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nd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regardless of major field, respectively. Moreover, in the major group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the link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major satisfact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and future study for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University student, Job-seeking stress, Depression, Major satisfaction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4세의 연령의 가장 큰 고민은 직업이었고, 이 연령의 청년은 10대 청소년과 달리 자살을 하고 싶은 까닭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문제를 호소한다

[1]. 최근의 한 뉴스 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취업 전쟁에 95%가 우울증을 느끼며, 우울증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계속되는 구직 실패, 취업경쟁에 자신이 없어서 등이었고 우울증의 증상으로 불면증, 무기력, 소화 장애,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2]. 대졸자들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학문의 추구가 주된 목적이었던 대학들도 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률 향상에

Corresponding author: Hana Yoo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ong-gu, Daejeon 34520, Korea.  
Tel: +82-42-280-4654, Fax: +82-42-280-2785, E-mail: hanayoo@dju.kr

Received: Nov 1, 2017 / Revised: Feb 12, 2018 / Accepted: Feb 12,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8~29세 연령이 우울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미취업 상태일 때가 전일제 취업 상태일 때보다 2.7배나 유의하게 우울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한국 대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 및 학교환경 요인 군에서 학업문제와 진로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효과 크기가 있었다[4]. 우울증은 가벼운 우울감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한 정신병적 상태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우울감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연령에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진로와 취업, 또한 이 시기의 중요한 건강문제인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대학 진학시 전공에 대한 흥미나 적성보다는 치열한 취업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원하는 전공을 선택했다라도 졸업 후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분야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정 전공자들이나 계열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진로와 취업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8]고 하였는데, 이런 연구들 취업과 전공영역의 일치도가 높은 학과들의 연구결과들이었다. 현재는 전공계열 간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전공만족도란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만족과 주변인들의 평가 정도를 나타내며, 학생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면 성적 저조,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불안과 신경증 등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대학의 면학 분위기 저해와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9]. 또한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가 증가하며, 정서적 문제와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0]. 따라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성과 상관없이 전공을 선택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 대학생활 동안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14년 일반대학 대졸자의 전공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57.5%, 사회계열은 62.3%, 자연계열은 61.9%, 공학계열은 73.3%로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11]. 청년층의 고용성과를 논하는 선행의 연구에서[12] 전공계열별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

로 전공과 직무일치도가 높은 전공계열이 취업과 관련된 여러 성과가 다른 계열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취업, 진로 관련 통계자료들이 전공 계열별로 분석되어 보고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 스트레스가 계열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매개하는 요인이나 영향요인들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전공계열별로 이것을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최근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외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요인에 대한 변수로 여러 연구에서[13,14]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9],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10],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파악한 연구[15] 등이 있었으나 아직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전공계열로 비교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취업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학생의 전공계열 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우울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우울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전공계열에 따라 확인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도 및 그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표본 추출을 위해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을 한글순서로 정렬한 뒤 번호를 부여하였고, 무작위 표본 추출 프로그램

(www.random.org)을 이용하여 4개의 대학교를 추출하였다. 선정된 K, S, H, S 대학의 학생회로부터 자료수집 허락을 받던 중 두 번째 추출된 S 대학의 자료수집이 불가하여 3개의 대학의 재학생이 본 연구의 대상자가 되었고,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254명이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41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본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 3.1.7[16]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95% 검정력 수준에서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인 .15, 예측변수 2개를 지정하였을 때 최소 107명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대상자 인문사회계열 학생 119명, 자연공학계열 학생 122명은 모두 분석에 적합하다.

### 3. 연구도구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총 6문항으로 성별, 나이, 학년, 종교유무, 학업성취도, 지각된 건강상태로 구성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만족한다’에서 ‘불만족한다’까지 3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지각된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하다’에서 ‘건강하지 않다’까지 3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 2) 취업 스트레스

Lee [17]의 취업 스트레스 측정도구 3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 7문항, 정서 8문항, 행동 12문항, 신체화 12문항으로 총 39문항이며 ‘매우 불일치’에서 ‘매우 일치’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의 가능범위는 1점에서 5점이다. Lee [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5였다.

#### 3) 전공만족도

직업안정성, 적성과 전문성, 학업분위기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Park [18]의 전공만족도 측정도구 17문항 중 직업안정성과 학업분위기의 하위영역의 경우 계열 전체보다는 일부 학과의 편중된 응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적성과 전문성에 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적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항들은 ‘나의 전공은 나의 소질에 맞는다’ 등 자신의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

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18]의 연구에서 적성과 전문성 5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4) 우울

Lee와 Song [19]가 표준화한 자기 보고형 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개 문항으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며 각 문항에서 기술되어 있는 4개의 진술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선택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의 가능범위는 0점에서 3점이다. Lee와 Song의 연구에서 일반인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78, 우울 환자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5였고[19],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K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제KBUIRB-201410-SB-015-01)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허락받은 세 개의 학교에 학생회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자유의지에 따라 연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이 끝난 직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표본 수와 예상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각 대학(K, H, S 대학)의 각 계열(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마다 40명 이상씩 총 240명 이상의 연구대상자가 확보될 때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특성과 연구변수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공계열에 따른 대상자들의 특성과 연구변수들의 차이 검정은  $\chi^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

Table 1. Comparison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of Two Groups

(N=241)

Variables	Categories	Student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119)	Students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n=122)	$\chi^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52 (43.7)	48 (39.3)	0.47 (.493)
	Female	67 (56.3)	74 (60.7)	
Grade	1	44 (37.0)	40 (32.8)	1.62 (.656)
	2	22 (18.5)	18 (14.8)	
	3	19 (16.0)	22 (18.0)	
	4	34 (28.6)	42 (34.4)	
Religion	Have	75 (63.0)	71 (58.2)	0.59 (.443)
	Not have	44 (37.0)	51 (41.8)	
Academic achievement	Satisfied	41 (34.5)	40 (32.8)	2.66 (.264)
	Moderate	16 (13.4)	26 (21.3)	
	Dissatisfied	62 (52.1)	56 (45.9)	
Current health status*	Healthy	93 (78.2)	94 (77.0)	0.49 (.864)
	Moderate	23 (19.3)	23 (18.9)	
	Unhealthy	3 (2.5)	5 (4.1)	
Job-seeking stress (range: 1~5)		2.24±0.79	2.16±0.55	0.94 (.348)
Major satisfaction (range: 1~5)		3.43±0.84	3.72±0.83	-2.73 (.007)
Depression (range: 0~3)		0.44±0.41	0.43±0.35	0.23 (.819)

\*Fisher exact test.

른 연구변수들의 차이는 t-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는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는 Baron과 Kenny [20]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Sobel test [21]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연구결과

### 1. 전공계열에 따른 대상자 특성과 연구변수 비교

연구대상자 241명 중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119명, 자연공학계열은 122명이었다. 전공계열에 따라 성별, 학년, 종교유무,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취업 스트레스, 우울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의 경우 자연공학계열 학생 3.72점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학생 3.4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2.73, p=.007$ )(Table 1).

### 2. 전공계열별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취업 스트레스의 경우, 성별( $t=-3.22, p=.002$ ), 학년( $\chi^2=9.63, p=.022$ ), 종교유무( $t=-2.35, p=.021$ ), 학업성취도( $\chi^2=21.20, p<.001$ ), 건강상태( $\chi^2=11.45, p=.003$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 그룹 2.44점, 4학년 그룹 2.50점, 종교가 없는 그룹 2.37점, 학업성취도 불만족 그룹 2.53점, 건강상태 보통 그룹 2.80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성별, 학년, 종교유무, 학업성취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건강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chi^2=3.37, p<.001$ ), 건강상태 나쁨 그룹에서 3.67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우울의 경우, 성별( $t=-2.61, p=.010$ ), 학년( $\chi^2=11.71, p=.008$ ), 종교유무( $t=-3.41, p=.001$ ), 학업성취도( $\chi^2=14.30, p=.001$ ), 건강상태( $\chi^2=11.97, p=.003$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 그룹 0.52점, 3학년 그룹 0.65점, 종교가 없는 그룹 0.53점, 학업성취도 불만족 그룹 0.55점, 건강상태 보통 그룹 0.67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연공학계열 학생들의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취업 스트레스의 경우, 성별, 학년, 종교유무, 건강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업성취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chi^2=12.23, p=.002$ ), 학업성취도 불만족 그룹에서 2.32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

**Table 2.** Differences of the Study Variables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241)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Depression	
			M±SD	$\chi^2$ or t (p)	M±SD	$\chi^2$ or t (p)	M±SD	$\chi^2$ or t (p)
Student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Gender	Male	2.00±0.68	-3.22	3.42±1.02	-0.06	0.33±0.35	-2.61
		Female	2.44±0.82	(.002)	3.43±0.68	(.950)	0.52±0.43	(.010)
	Grade	1	2.00±0.82	9.63	3.36±0.99	1.65	0.33±0.38	11.71
		2	2.20±0.52	(.022)	3.45±0.60	(.648)	0.39±0.36	(.008)
		3	2.41±0.79		3.63±0.68		0.65±0.46	
		4	2.50±0.83		3.38±0.85		0.50±0.40	
	Religion	Have	2.03±0.75	-2.35	3.45±0.85	0.26	0.29±0.35	-3.41
		Not have	2.37±0.79	(.021)	3.41±0.84	(.798)	0.53±0.42	(.001)
	Academic achievement	Satisfied	1.83±0.54	21.20	3.41±0.92	0.21	0.30±0.38	14.30
		Moderate	2.21±0.69	(<.001)	3.50±0.82	(.903)	0.36±0.27	(.001)
		Dissatisfied	2.53±0.84		3.42±0.80		0.55±0.43	
	Current health status	Healthy	2.10±0.72	11.45	3.49±0.82	3.37	0.38±0.39	11.97
Moderate		2.80±0.88	(.003)	3.13±0.92	(<.001)	0.67±0.43	(.003)	
Unhealthy		2.33±0.38		3.67±0.58		0.46±0.15		
Students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Gender	Male	2.11±0.48	-0.81	3.71±0.82	-0.14	0.30±0.26	-3.42
		Female	2.19±0.59	(.419)	3.73±0.83	(.889)	0.51±0.38	(.001)
	Grade	1	2.07±0.56	3.96	3.75±0.67	0.34	0.47±0.36	10.00
		2	2.04±0.47	(.266)	3.78±0.94	(.953)	0.36±0.33	(.019)
		3	2.34±0.54		3.73±0.77		0.60±0.36	
		4	2.21±0.56		3.67±0.95		0.33±0.31	
	Religion	Have	2.13±0.58	-0.62	3.76±0.76	0.50	0.42±0.32	-0.33
		Not have	2.19±0.53	(.534)	3.69±0.87	(.617)	0.44±0.37	(.741)
	Academic achievement	Satisfied	1.92±0.55	12.23	3.85±0.74	2.00	0.27±0.31	17.06
		Moderate	2.20±0.51	(.002)	3.69±0.68	(.371)	0.45±0.33	(<.001)
		Dissatisfied	2.32±0.52		3.64±0.94		0.53±0.35	
	Current health status	Healthy	2.14±0.55	3.23	3.78±0.78	4.28	0.35±0.31	19.40
Moderate		2.33±0.55	(.199)	3.39±0.94	(.116)	0.72±0.33	(<.001)	
Unhealthy		1.89±0.46		3.80±0.84		0.49±0.51		

공만족도의 경우, 성별, 학년, 종교유무,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울의 경우, 종교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성별( $t=-3.42, p=.001$ ), 학년( $\chi^2=10.00, p=.019$ ), 학업성취도( $\chi^2=17.06, p<.001$ ), 건강상태( $\chi^2=19.40,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 그룹 0.51점, 3학년 그룹 0.60점, 종교가 없는 그룹 0.44점, 학업성취도 불만족 그룹 0.53점, 건강상태 보통 그룹 0.72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3. 전공계열별 취업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r=-.294, p=.001$ ), 전공만족도와 우울( $r=-.285, p=.002$ )은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r=.547, p<.001$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연공학계열 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r=-.298, p=.001$ ), 전공만족도와 우울( $r=-.312, p<.001$ )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r=.508, p<.001$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 4. 전공계열별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오차항, 이상치 검사를 통해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1.10으로 10 이하였고, Durbin-Watson 통계량 1.92~2.15로 기준값 2에 근접하고 있었으며, 최대 Cook's Distance 0.13~0.19로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식의 기본 가정이 모두 충족되므로 본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공만족도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세 단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정식은 매개변수를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 둘째 방정식은 종속변수를 매개변수에 대해, 셋째 방정식은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해 회귀분석 하였다(Table 4). Baron과 Kenny [20]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방정식에서 독립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방정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방정식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둘째 방정식보다 셋째 방정식에서 더 작아야 한다.

다. 만약 셋째 방정식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유의하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는 우울을 30% 설명하였으며 전공만족도는 2%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였다. 그리고 Baron과 Kenny [20]의 방법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 $\beta = -.14, p = .093$ ). 자연공학계열 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는 우울을 26% 설명하였으며 전공만족도는 3%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였다. 그리고 Baron과 Kenny [20]의 방법으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beta = -.18, p = .032$ ). 또한 셋째 방정식에서 독립변수인 취업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므로( $\beta = .46, p < .001$ ) 전공만족도가 약 9.4%의 부분매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자연공학계열 학생의 경우에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for Study Variables in the Two Groups (N=241)

Variables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Depression
	r (p)	r (p)	r (p)
Job-seeking stress		-.294 (.001)	.547 (< .001)
Major satisfaction	-.298 (.001)		-.285 (.002)
Depression	.508 (< .001)	-.312 (< .001)	

Correlation above the diagonal are for student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119); Those below the diagonal are for students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n=122).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by College Major (N=241)

Variables	Equations	B	$\beta$	t	p
Student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1. job-seeking stress → major satisfaction	-.31	-.29	-3.33	.001
	Adj. R <sup>2</sup> =.09, F=11.07, p=.001				
	2. job-seeking stress → depression	.28	.55	7.06	< .001
Adj. R <sup>2</sup> =.30, F=49.89, p<.001					
Students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3.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 depression	.26	.51	6.31	< .001
	job-seeking stress → depression	-.07	-.14	-1.70	.093
	major satisfaction → depression	Adj. R <sup>2</sup> =.32, F=26.78, p<.001			
Students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1. job-seeking stress → major satisfaction	-.45	-.30	-3.43	.001
	Adj. R <sup>2</sup> =.09, F=11.74, p=.001				
	2. job-seeking stress → depression	.32	.51	6.46	< .001
Adj. R <sup>2</sup> =.26, F=41.68, p<.001					
Students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3.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 depression	.29	.46	5.61	< .001
	job-seeking stress → depression	-.08	-.18	-2.17	.032
	major satisfaction → depression	Adj. R <sup>2</sup> =.29, F=23.83, p<.001			

Sobel test: Z=2.05 p=.040

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2.05, p=.040$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전공계열별로 분석하여 추후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변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의 대상자들은 성별, 학년, 종교유무,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취업 스트레스, 우울에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만족도가 자연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대학생 5794명을 조사한 여론 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37.3%가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고, 전공만족도가 가장 낮은 전공은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순이었고,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이유로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전공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전공을 하고 싶어서로 나타났는데[22] 이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는 모든 계열에서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변수들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Jin과 Sung은 공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진로탐색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 전공계열은 아니지만 세부 전공에 따라 전공만족과 취업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본 연구들을 분석하면, Jung과 Yang은 유아교육전공자를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라고 하였고[6], Chung은 항공서비스전공자를 대상으로 전공만족이 취업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7], Moon은 호텔관광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전공만족이 직업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8]. 선행의 연구들은 취업분야와 전공이 연계성이 높은 학과들의 결과였는데, 본 연구는 전공계열로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가 보임으로 결과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성별, 학년, 종교유무, 학업성취도,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자연공학계열 대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앞서 제시한 국가 통계자료에서 계열별로 제시한

취업률에서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고[11], 또 자연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취업확률과 대기업취업확률이 높다고 한 연구도 있었다[23].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공학계열에 비해 전공연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이 더 취업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라 생각된다.

특별히 인문사회계열 내에서도 여대생, 구직활동이 많이 시도될 것이라 예상되는 4학년, 학업성취도가 불만족인 그룹은 더욱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Choi와 Lee의 연구에서 성별, 학년,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었던 것[24]와 유사한 결과이다. 3, 4학년이 1, 2학년 보다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 있는 직업, 자신의 관심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찾으려는 부담감이 커져 취업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사료된다.

우울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상관없이 대학생 모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즉 계열과 상관없이 여학생, 3학년, 학업성취도가 불만족인 그룹, 현재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그룹이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의 연구들을 보면, Kim과 Choi의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학년, 전공에 따라 우울은 차이가 없었고, 학년과 전공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Jeon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와 같이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문사회계열의 여대생은 남학생에 비해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지만, 자연공학계열의 여대생의 경우 우울점수는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취업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2.11점, 여학생이 2.19점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Lee와 Cho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취업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더 많았고[27], Sin과 Jang은 여대생이 취업 스트레스가 더 크고, 우울, 불안 등의 건강문제를 더 호소한다[28]고 하였다. Lee와 Cho는 여학생이 취업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은 과거의 경우 여성의 취업의식이 비교적 약하고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적었으나 현재는 여학생들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취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7]. 따라서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여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비교적 더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여학

생이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더 높지 않은가 추측한다.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은 전공계열에 상관없이 모든 계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선행연구들 [24, 26]과 같은 결과로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같은 맥락에서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모두에서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가, 전공만족도와 우울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근 자연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을 위해 자연공학계열의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부정하기 어렵다. 적성과 상관없이 선택한 전공의 경우 전공에서의 성취도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전공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전공연계 취업을 이미 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만족의 매개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자연공학계열의 학생들에서 전공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였던 것은 적성에 따라 전공만족의 차이가 좀 더 극명할 수 있고, 전공연계 취업을 이루어졌을 때의 결과도 적성에 따라 극명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국한된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좀 더 대단위의 계열별 조사 및 비교를 제언한다. 본 연구와 같이 전공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전공 계열별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지만, 전공계열의 구분 없이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전공만족도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가 26%의 설명력이 있었다[10]. 따라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는 중·고교에서 대학에서 전공교과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안내보다는 중·고교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직업에 대해 전문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관심 직업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는 등의 직업 조사 및 간접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교에서 대학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 관심 전공에서 실제 배우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전공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내 청년 실업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대학에서는 많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15, 29, 30]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울은 그 자체로도 건강문제이지만, 자살사고와 같은 더 심각한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 취업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고 거시체계가 조절되어야 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 수준이나 집단 내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탐구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하는 변수로 전공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인문사회계열과 달리 자연공학계열의 학생은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자연공학계열의 학과들은 입학후 대학생들에게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에게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중재 가능한 매개변인을 찾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전공계열로 비교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계열과 상관없이 취업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전공만족도와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가,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 그러나 자연공학계열 학생의 경우 독립변수인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공만족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조절요인으로 전공만족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보건사업에서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들의 경우는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며,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하는 중재 가능한 변인들을 찾는 연구들이 계속되기를 제언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서울시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 연구이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고 확대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2 Youth statistics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2 [cited 2016 October 30].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quick_02)
2. Park YJ. Mental illness deepening in job hunting [Internet]. Seoul: Newsis; 2016 [cited 2016 October 30]. Available fr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4\\_0014220666&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4_0014220666&cID=10201&pID=10200)
3. Cho MJ, Park JI, Bae A, Bae JN, Son JW, Ahn JH, et al. 2011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Mental Health Report. Sejong C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December.
4. Kwak HJ, Kim HJ. A meta-analysis of related factors depression of Korea university student. Korea Youth Research. 2013;20(7): 75-98.
5. Jin SH, Sung EM.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ith college students in engineer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2;31(1):1-18.
6. Jung YY, Yang JH.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employment stress of the pre-service teachers who majo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3;20(3):229-248.
7. Chung M.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maturity on the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014;12(1):81-104.
8. Moon JH.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major satisfaction and vocation selection -Focused on the college students major in hospitality and 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2015;17(1):323-347.
9. Lee MR, Park BH.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prepar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14;11(4):77-93.
10. Byun EK, Park SH.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1):323-330. <https://doi.org/10.5762/KAIS.2014.15.1.323>
11.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Internet]. Seoul: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cited 2017 September 30]. Available from: <http://kess.kedi.re.kr/index>
12. Lee J, Youn B.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by college majors: Comparing graduate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th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012;22(4):199-226.
13. Lee YK, Kang KH. The analysis about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undergraduates-In focus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colleg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011;14(2):60-67.
14. Ko GP, Sim MY.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4; 27(1):19-38.
15. Kim JU, Ji YO.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job-seeking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16(12):1313-1334.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12.1313>
16.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9;41(4):1149-1160. <https://doi.org/10.3758/brm.41.4.1149>
17. Lee MS.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scale [master's thesis].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1. p. 1-88.
18. Park HS. A study of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job valu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service-related majors [master's thesis]. Gwangju: Honam University; 2015. p. 1-56.
19. Lee Y, Song J.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1;10(1):98-113.
20.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1182.
21. Sobel M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13:290-312.
22. Yoo T. College students 37.3% "I want to change my major" [Internet]. Seoul: Edudonga; 2017 [cited 2017 October 6]. Available from: <http://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6077>
23. Hwang Y, Baek B.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2008;11(2):1-23.
24. Choi SH, Lee H.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13(12):808-816. <https://doi.org/10.5392/JKCA.2013.13.12.808>
25. Kim E, Choi K. The effects of the depression and job-seeking stress on the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012;19(2): 231-239.

26. Jeon HO.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adult attachment and self-assertiveness, on depress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7): 312-323. <https://doi.org/10.5392/JKCA.2014.14.07.312>
27. Lee IS, Cho JY. Employment stress,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1;13(2):745-758.
28. Sin HG, Jang JY.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ender,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enio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22(4): 815-827.
29. Hammarstorm A, Janlert U. Nervo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unemployment: selection or exposure. *Journal of Adolescence*. 1997;20:293-305. <https://doi.org/10.1006/jado.1997.0086>
30. Yun WS.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2016;13(1):95-118.